

아침에
웃는
너
자
리
카
락

최기자시집

연변인민출판사

최기자시집

아침에 머리카락 좇는 여자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방복순

책임교정: 최 문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早晨梳发的女人 / 崔基子著. —延吉: 延边人民
出版社, 2006. 12

ISBN 7-80698-839-4

I. 早... II. 崔... III. 诗歌—作品集—中国—
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1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162149号

早晨梳发的女人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5.25 字数: 14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839-4 (民文)

版次: 2006年12月第1版 2006年12月第1次印刷

印数: 700册

定价: 12.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저자력

연길출생.

연변대학 조문학부 졸업. 편집.

중국조선어문잡지사 부주필,

연변조선족녀류사회 초대회장,

사단법인 연변조선족어머니수필회
초대회장 등 역임.

연변작가협회 회원, 산문창작위원
회 위원.

《해란강문학상》, 《두만강여울소리》
시탐구회 우수상 등 다수.

E-mail: kzcui@hanmail.net

전화: 0433-2512900

시집 《아침에 머리카락 쫓는 여자》는 거창한 소재를 다룬것이 아니라 시인자신의 주변적인 사실이나 가족관계 등 신변사를 다루면서 인간의 존재론적문제와 인생살이를 묻혀내고있으며 자기의 인생철학과 지조의 미학을 치열한 삶의 양태, 한의 세계, 저항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언어의 그물로 건져올리고있다. 그의 시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의지, 저항의 시적응전이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있다.

— 조성일(문학평론가)

서 문

한창 《시인》이 될 나이에 나는 《법관》이 될 꿈을 가졌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이 터지고 농촌에 내려가고 대대선전대란 곳에서 시라는것을 포함해서 글이라는것을 썼고 두 아이 엄마로 학교를 다녔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딸아이가 제 아이를 업고 직장생활하는 이 나이에 시쓰는 일에 부지런히 매달린다.

세월이 《술》을 빚고 그 《술》에 섞여진것일가, 그래서 내 시는 모두 그렇고 그렇게 섞여진 시고 내 인생과 같이 내 시도 별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내 시집이 서점 어느 한구석에 놓여있더라도 사람들이 잠깐, 아주 잠깐 보아주기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시집을 제일 먼저 보아주시고 좋은 글까지 써주신 조성일회장님께는 정말 감사를 드린다.

차 례

서 문 / 1

제1부 카텐을 거두라

바다가 알락조약돌	/ 3
인공파도	/ 4
얼음쫄각	/ 5
얼음등	/ 6
산(1)	/ 7
산(2)	/ 8
눈(1)	/ 9
눈(2)	/ 10
성에꽃(1)	/ 11
성에꽃(2)	/ 12
백두폭포	/ 13
산으로 갈 때	/ 14
할머니라는 말 듣고싶어유	/ 15
여름산	/ 16
카텐을 거두라	/ 17
그래도 잘 보내세요	/ 18

제2부 죽음의 향기

- 21 / 철길(1)
- 22 / 철길(2)
- 23 / 철길(3)
- 24 / 련인절날
- 25 / 줄기와 가지(1)
- 27 / 정자의 미로
- 28 / 문어인간
- 29 / 뻘꾸기종 그리고 뻘꾸기울음
- 31 / 허수아비(1)
- 32 / 허수아비(2)
- 33 / 허수아비(3)
- 34 / 허수아비(4)
- 35 / 동곽선생을 찾는 승냥이
- 36 / 자 리
- 37 / 신호등
- 38 / 어떤 타액들
- 39 / 죽음의 향기
- 40 / 신세 좀 지자 하네

제3부 말하는 사람 만나고싶다

울가을 하늘은	/ 43
어떤 대화	/ 44
세수비누	/ 45
어느날 밤	/ 46
뉘시터에서	/ 47
인공분수	/ 48
뉘시터에서 혼자 중얼거리다	/ 49
호피란(虎皮兰)의 눈물	/ 50
현대아큐	/ 51
입	/ 52
내가 만약 남자라면	/ 53
종합포도술(1)	/ 54
종합포도술(2)	/ 55
종합포도술(3)	/ 56
불 효	/ 57
어느날	/ 58
말하는 사람 만나고싶다	/ 59
봄 비	/ 60

제4부 여름 쏙밭에서

- 63 / 둥굴레차 마시며
- 64 / 여름 쏙밭에서
- 66 / 망부석(亡夫惜)
- 67 / 아버지, 은하수엔 물고기가 많겠지요
- 70 / 어머님, 다 놓고 가세요
- 72 / 참외를 사면서
- 74 / 카메라를 마주하고
- 75 / 마음 늙는 약은 어디서
- 76 / 마음도 늙었으면 좋겠다
- 77 / 비를 기다려
- 79 / 울수 없는 리유
- 80 / 뿌리
- 81 / 래일 하루는 여섯시간
- 82 / 애 인
- 83 / 소 망
- 84 / 해마다 칠월이면
- 85 / 줄기와 가지(2)
- 86 / 외할머니와 결혼한다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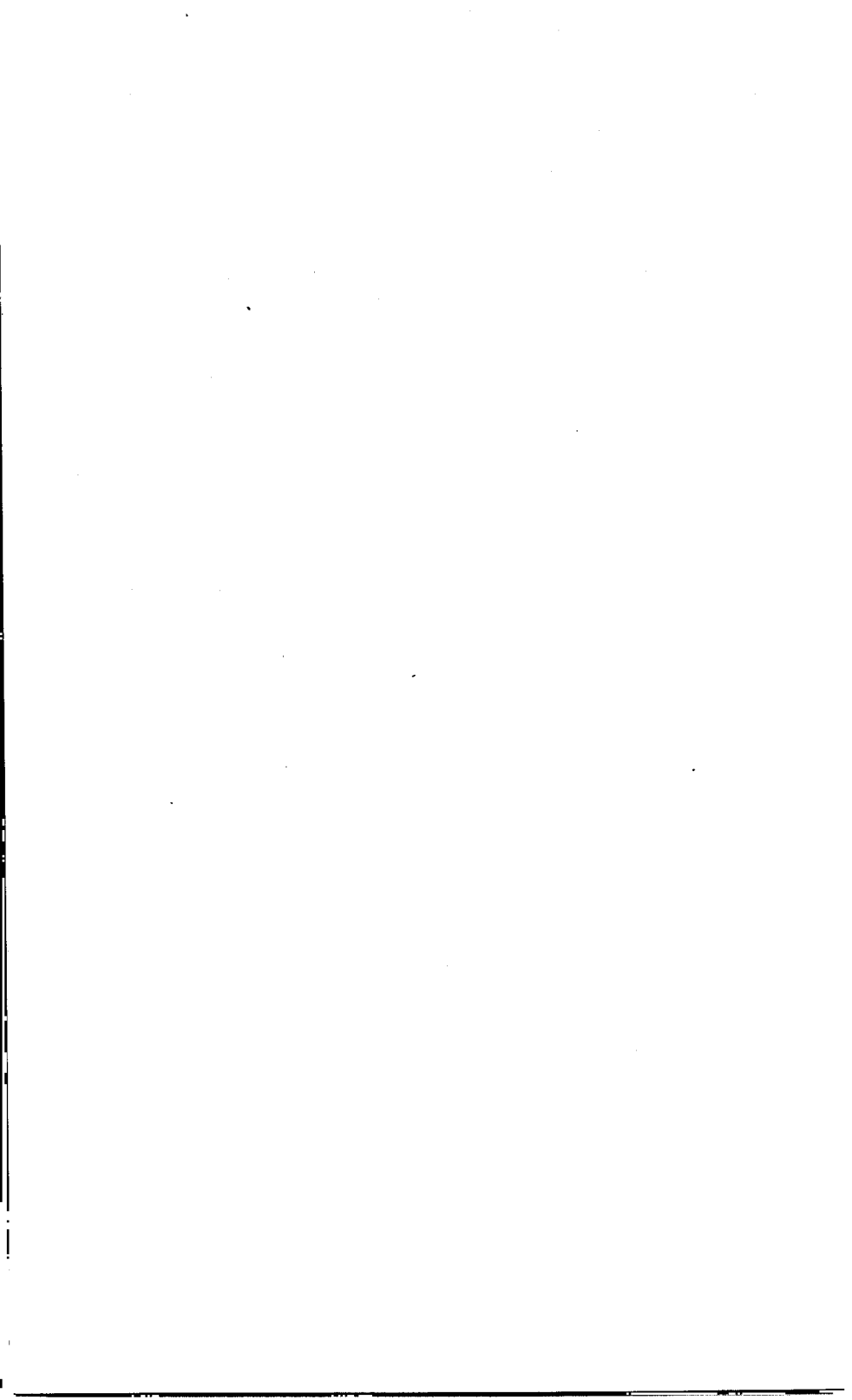
제5부 채소장바구니 들지 않는건

채소장바구니 들지 않는건	/	89
나의 신발장	/	91
레이저빔	/	92
정한(情恨)	/	94
내 너자를 찾아	/	95
죄인(1)	/	97
선달 그믐날엔	/	98
무제(2)	/	100
고독이 외박	/	101
련인절선물	/	102
삼일포에서	/	103
망장천 한모금에	/	104
아침에 머리카락 짓는 여자	/	106
재혼하지 않는 리유	/	107
바람 바람(风,盼)	/	109
내 마지막 사랑에게	/	110
문고리 잡으며	/	112
아침시장에서	/	113

제6부 길이 길을 막는다

- 117 / 길이 길을 막는다
- 119 / 자화상
- 121 / 무제(1)
- 122 / 기어이 죽으라면
- 123 / 죄인(2)
- 124 / 사랑을 천년랭장고에
- 125 / 알 고
- 126 / 여보소
- 127 / 이럴 땐
- 128 / 제판엔
- 129 / 이름앞에서 무릎 꿇고
- 130 / 빈의관에서
- 131 / 부 채
- 132 / 울다가 크게 앓았습니다
- 134 / 좁쌀 한알 먹었다
- 136 / 민들레행렬에서 나오고싶던 날
- 137 / 서리발속에서
- 139 / 언어의 그물로 건져올린 삶의 지조 / **조성일**

제1부 카텐을 거두라



바다가 알락조약돌

너무나 다른 론리들이
너무나 뚜렷한 현실로
시간속에
끼이고
죄이고
영기고
녹아붙어있었다

인공파도

바다물을 잡아들였다 발버둥질이 묶이였다
바다물에 기둥이 서고 지붕이 없혀였다
젊은 바다물이 갇히여 늙어가고
죽은 바다물이 전기에 취해 숨을 헐떡인다
술한 사람들이 그 잔등을 올라타고
그 숨결에 다닥다닥 매달려
태초의 향수(乡愁)를 구걸한다

향수(享受)랍시고
죽은 바다물을 유린하며
전기세례 받고있었다
사람들이

얼음쫓각

살을 꺾고 태어나
이제 곧
죽어야 할 찬란함

애원하고
하소연하고
발버둥쳐도
병어리로 눈물 흘리며
바삭바삭 여위여가며
가차없이 지옥에 묻혀야 할

그앞에서
당초의 붉은피는
빛을 잃고있다